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우리 식의 경음악과 관현악, 다양한 성악종목들의 배합으로 새로운 경지의 음악형상을 창조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접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러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고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이 우리 당의 성스러운 70년사를 그대로 반영

하였다고, 창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높이 치하시면서 출연자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 사업을 명도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의 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선군혁명의 제일나팔수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칠 불라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은 이 나라 천만자식을 한몸에 안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신뢰심과 우리 당의 붉은 당기를 뜻으로 삼고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